

제주사회복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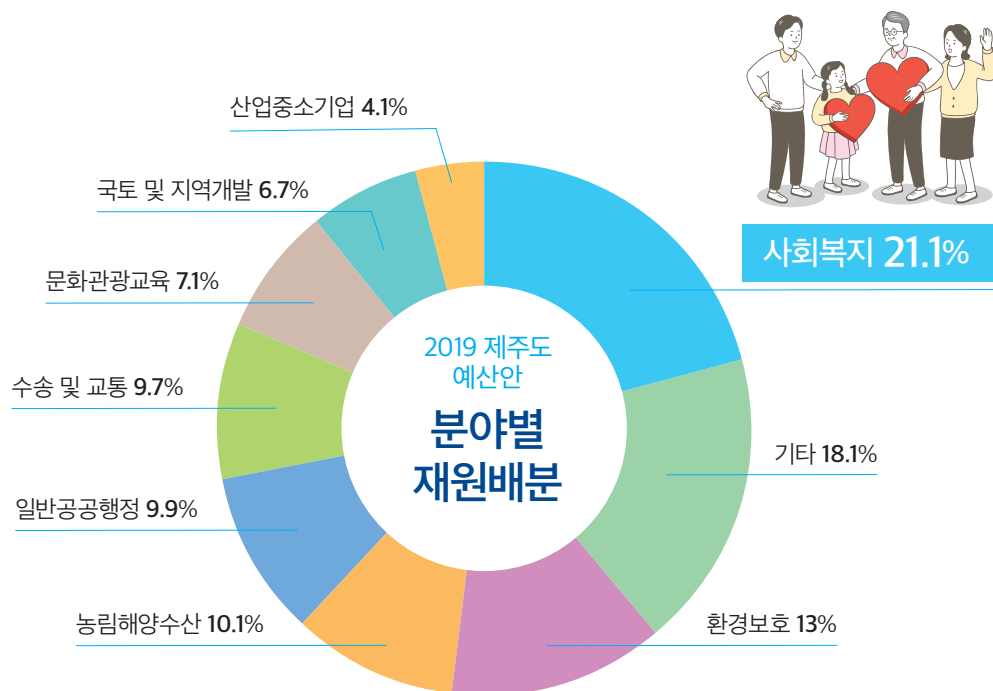
>2018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4호

내년 복지 투자 역대 최대 규모

도, 2019년도(안) 1조1314억 편성... 올해대비 12.4% 늘어



제주도가 내년 복지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달 12월 2018년도 본예산 5조 297억 원보다 6.4%(3227억 원) 증가한 5조 3524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

회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환경 및 서비스를 확대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의 21.1%인 1조 1314억 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복지사업 예산 1조 62억 원보다 1252억 원(12.4%) 증가한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중점 투자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단가 상향에 223억 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에 1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권익보호·일자리·자립기반 마련에 힘쓴다.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신설

에 17억 원,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추가지원에 6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2억 원 등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에 50억 원,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34억 원,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용지 매입에 3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5억 원 각각 투입한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4일까지 제주도의회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나눔캠페인 47억 7500만원 목표

도·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출범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달 20일 제주도청 4층 본관 탐라홀에서 2019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 간의 모금 대장정에 들어갔다.<사진>

출범식은 개식 선언, 인사말, 사랑의 열매 온도 탐라 제막식, 기념촬영, 성금기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47억 7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형오거리 노형타워 인근에 설치될 사랑의 열매 온도탐 수은주는 모금

목표액 1%인 4775만 원이 올라갈 때마다 1℃씩 올라가며 모금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가 된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 생계·의료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금 등 도내 사회복지전 분야에 걸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성금 기탁은 공동모금회 모금 접수창구와 금융기관, 약국, 읍·면·동 사랑의 열매 모금함, 사랑의 전화 ARS(060-700-0009, 한 통화 3,000원)를 통해 가능하다.

지면소개

- | | |
|--|----------------------------------|
| ■ 종합 3면
원어민 교실 연합발표회 성황 | ■ 오피니언 6면
시론-컬럼·기고 |
| ■ 사회복지소식 4면
어우령 더우렁 다문화 축제 호응 | ■ 특집 7면
무지개 연가 시화전 전시작품 |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 치 환 외 임직원 일동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된다

김경미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입양가정 지원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입양가정·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 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 원(장애아동 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

비도 추가 지원되게 된다.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달 6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사진>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회의실에서 ‘2018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제주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과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논의했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방안을 논의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케 됐다.

고교 무상급식은 올해 2학기부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도는 내년부터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총 404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도가 60%인 242억 5600만 원을, 교육청은 40%인 161억 71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일배움터 ‘내 화분을 부탁해’ 행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일배움터(시설장 오영순)는 지난달 8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의 함께 환경캠페인-

사회공헌 콜라보 ‘내 화분을 부탁해’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최근 제주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가져온 폐화분과 플라스틱 페트병 등을 재활용해 새로운 반려식물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일배움터 종사자 박OO씨는 “일배움터 장애인사

원들이 새로운 식물을 심어 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직원 고OO씨는 “제주도에 쓰레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폐화분 재활용으로 조금이라도 제주도가 깨끗해지는 것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김장으로 따뜻한 사랑 나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제주지역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가 후원하는 ‘2018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지난달 24일 협의회 앞마당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겨울철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주은행과 신

한금융그룹 제주지역 자회사 임직원과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담근 김치 1200포기는 제주도내 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가정 400여가구에 전달됐다.

서현주 은행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는 겨울철 우리의 이웃을 위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전달하는 뜻깊은 ‘사랑과 나눔’ 행사로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758 @ 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 하나도 없는 나눔”

11월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277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1,436개 ▲(주)쿠팡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486봉 ▲김유빈님=기타식재료18개 ▲김치원=배추김치20kg ▲나눔베이커리=제빵93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60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223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368개 ▲또아식빵=식빵299봉 ▲모양=빵331개 ▲미인빵=빵102봉 ▲비엔누아즈=빵392봉 ▲윤미숙님=기타식재료8개 ▲이든이네=건어물21kg ▲일성식품=고춧가루24kg ▲정필이오메기=떡21개 ▲제주보리촌=보리빵740개 ▲제주시청주민복지과=쌀950kg ▲참새방앗간=떡1075개 ▲코코호두=호두과자4상자 ▲파파무베이커리=빵253봉 ▲훈이상사=고등어통조림24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70,000	520,00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95,000	39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30,000	1,688,770
푸 드 마 켓 후 원	3,045,000	281,05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봉식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원어민 교실 연합발표회 성황

도사회복지협의회, 9개 지역아동센터 참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제주지역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참여센터 연합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합발표회에서 9개 센터의 어린이들이 그동안 배운 영어를 토대로 시낭송, 합창, 연극, 율동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직접 원어민 강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캐리커처 액자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공연 참여아동은 “처음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부끄러웠지만 열심히 연습한 만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즐겁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원어민 교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 과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도내 어린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진행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한봉금)는 지난 10월 27일 KBS제주공개홀에서 제6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인으로서의 자립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및 근로 장애인의 자기주장발표가 진행됐고, 2부 행사에서는 노래자랑 및 댄스파티를 실시해 근로 장애인과 종사자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행사장에서는 제품홍보 및 할인

판매 행사도 실시됐다.

자기주장 발표에 참여한 근로장애인 김주일씨는 “일하는 기쁨이 매우 크다”며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봉금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0개 제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단합을 도모하고 각 시설 제품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며 “도민들에게 직업재활시설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유나이티드 ‘명랑운동회’ 개최



제주유나이티드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 부근 실외운동장에서 이마트와 함께 하는 내마음의 ‘썩’ 명랑운동

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명랑운동회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어달리기, 훌라후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 아이들에

게는 유나이티드 유니폼과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도 제공됐다.

명랑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제주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 투어, 전북 현대전 관람을 통해 제주유나이티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축구경기 하프타임에는 이마트서귀포지점 김영돈 지점장이 도사회복지협의회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자격 신설 등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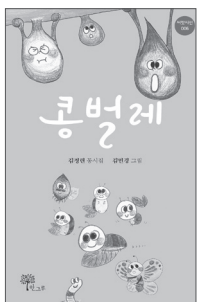
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다.

김정련 작가 첫 동시집 발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 발행하는 마을지 ‘아라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련 작가가 첫 동시집 <콩벌레>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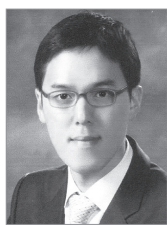
동시집에는 1부 ‘가을 한 장’, 2부 ‘따뜻한 겨울’, 3

부 ‘힘내 봄’, 4부 ‘변신 중인 여름’ 등 사계절로 나뉜 총 68편의 동시가 실렸다.

특히 동시집의 그림은 김 작가의 딸인 김민경씨의 작품으로 엄마가 쓴 동시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그려냈다.

김 작가는 오랫동안 복지관에서 방과 후 아이들과 지냈고 지금은 초등학교 돌봄교사, 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MBC백일장, 여성신문백일장, 삼의문학상, 아동문예신인상을 수상했다.

황인철 변호사 표창패 수상



황인철 변호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자문위원)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3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설립 31주년 기념 이사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제주시지역 법률홈닥터로 활동 중이다.

황인철 변호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자문위원)

“재사용 가능 의류 기부해요”

제주시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오는 10일까지 재사용 가능 의류, 생활용품을 기부 받는 행사를 운영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기부 받은 물품은 재사용·자원재순환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등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기부 물품은 의류와 가구, 가방, 도서, 주방용품, 가전

등의 생활용품 등이다.

기부 받은 물품은 수급자들의 일자리사업인 자활센터와 연계해 세탁, 수선해 재판매 또는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나눔 행사 사업으로 이어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340점(옷 20,000점, 생활용품 및 잡화 등 340점)을 기부 받았다.

어우렁 더우렁 다문화 축제 호응

3000여명 참여...다문화인식개선 사업 홍보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제9회 지역주민과 어우렁 더우렁 다문화 축제'가 지난달 11일 구좌체육관에서 도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구좌읍(읍장 부준배)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부스와

참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체험부스에서는 베트남 문화 체험 어린이 놀라 그림그리기, 일본문화 체험 하네츠키 공놀이, 한국문화 체험 연 만들기, 필리핀의 티니클링·툼방프레소, 중국의 공주놀이, 베트남의 코코넛 밟기 등이 진행됐다.

참여마당에서는 하트

풍선 나누기와 바람개비 돌리기,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의 아로마 캔들 및 우리가족 머그컵 만들기가 이뤄졌다. 또한 행사날인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주워오는 어린이들에게 막대과자를 증정하는 환경캠페인 이벤트도 전개됐다.

윤두호 관장은 "지역간에 네트워크 형성과 결속력을 다지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홍보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실시

제주시는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의 경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등이다.

희망나래 풍물패 풍물공연 선배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최영열) 희망나래 풍물패는 지난달 16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2018 이웃사랑 바자회'에서 길트리 공연으로 풍물놀이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

었다.<사진>

희망나래 풍물패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도내 최초로 만들어진 장애인 풍물패다. 단원들은 지난 4월부터 풍물을 익혀왔으며 9

월부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초청 공연을 하는 등 길놀이와 인사굿 및 사자탈춤 등을 펼치며 도내 지역주민과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함께 감동을 선사했다.

최영열 원장은 "희망나래 풍물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소/식/마/당

(무순)

문화체험 기회 제공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순희)은 지난달 14~16일 제주난타극장에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난타공연관람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자간 유대관계증진의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서귀포중앙로터리에서 서귀포시청(시장 양윤경), 서귀포경찰서(서장 최보현)와 함께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신고전화번호와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사진과 자료 등을 전시했다.

멘토링 사업 운영 방향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7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제주시내 멘토링 사업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멘토링 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각 기관별 진행하고 싶은 멘토링 사업과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



제주시 주민복지과(과장 윤인성)는 지난달 24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라동에 위치한 아름마을요양원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고 이용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주민복지과는 매월 1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10월 1~2일과 29~30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대훈 교수(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박진상임활동가(다산인권센터)가 강사로 나서 인권친화적 조직 만들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나바다 수익금 기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최근 제주한라유치원에서 아나바다장터 수익금을 창암재활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한라유치원 원생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과 멋진소비, 사회환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경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식/마/당

(무순)

토크콘서트 운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3일 청소년문화카페 '생느행'에서 위탁아동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토크콘서트 '꿈을 잡아라'를 운영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제주대학교 사법대학부설중학교 고경민(가명, 15),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강사 김보형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르신 점심식사 대접



산지물식당(대표 이경아)은 지난달 7일 입동을 맞아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이 담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추워진 날씨에 혼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데 정성스러운 음식을 다함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토끼와 거북이 걷기대회 '호응'



(사)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는 지난달 3일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맞아 구좌체육관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장, 자원봉사자, 지역아동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토끼와 거북이 걷기대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걷기대회는 참가자들이 총 3.8km를 손잡고 걷는 시간으로 실시됐다. 또 다양한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도 운영 됐다.

장기기증 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 10월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도민과 신장장애인들이 이호해변부터 탐라문화광장 거리를 행렬하며 장기기증 참여를 홍보했고 2부에서는 많은 이식희망자들의 바램을 알리며 장기기증문화 참여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배시민대학 발대식 개최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은 지난 10월 29일 서귀포 벨류호텔에서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시민대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큰술심리상담센터의 이완국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으로 진행됐다. 선배시민대학은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강의를 선정해 토론 하는 형식으로 2019년 3월부터 진행 될 예정이다.

도내 문화체험 활동 진행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10월 28일 휴애리 등에서 제주넷별라이온스클럽(회장 김병숙) 자원봉사자 봉사단과 거주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도내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문화체험활동은 휴애리 관광지를 둘러보고 점심식사도 하며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화합한마당 족구대회 마련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 10월 26일 제주시희망원 운동장에서 희망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희망가족 화합한마당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족구대회는 연 1회 정기적인 행사로 희망가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연습한 족구를 통해 노숙인시설과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들과 화합함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직무 능력 향상 협약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지난 10월 25일 감물염색기능전수자 감수광(대표 오운자)과 천연염색 관련 실무교육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품개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기술함양 등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직업재활 직무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상호우호 증진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 10월 24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연)와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후관리, 각 기관 서비스 홍보에 대한 협조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위기 청소년 대상 서비스 협력



제주몽생이(여자)그룹홈(시설장 윤문희)·제주소나미(남자)그룹홈(대표자 김완숙)은 최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내 청소년의 가출 및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및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상호 협력키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최근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이용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강릉)일대에서 '2018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모님과 이용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부모님과 종사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홀몸어르신 오일장나들이 체험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건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숙)와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재일)와 함께 지난 10월 26일 함덕 민속 오일장에서 지역내 홀몸 어르신과 함께 '인정이 넘치는 만덕마을 만들기' 행사의 일환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어르신들은 봉사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함덕 바닷가 산책을 했다.

시론

이탈리아 북부 스키관광지에서 타전한 승전보

필자는 지난 9월 이탈리아 북부 마돈나 디 캄벨리오에서 열린 제8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GN) 총회에 제주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지만, 화산섬 제주는 2020년 제9차 GGN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 총회에는 세계 70개국 1200명 이상의 지질공원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리한 여건 이겨낸 저력

새삼스럽게 필자가 이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차기 GGN 총회 유치가 중국 단하산 세계지질공원과 치열한 경쟁 끝에 제주인의 저력을 발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함이다.

뒤늦게 확인된 것이지만, 우리는 현장에 가서야 심사위원 10명 가운데 중국인이 2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물론 한국인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다.

그러나 GGN에서 선보인 제주대표팀의 차기 총회유치 전략은 삼위일체 한마음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제주도정,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부로의 공동 전략은 상대 지질공원을 능가하였다. 이들 3개 기관은 제주 접근의 용이성, 뛰어난 회의시설 인프라, 지질공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참가 지원 등을 발표하여 심사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뿐이 아니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성공적인 총회 개최 지원 메시지와 함께 대표단장으로 제주팀을 이끈 전성태 행정부지사의 예고가 없던 발 빠른 행·재정적 지원 약속은 마침내 6대4라는 투표 승전보를 타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세계가 감동받는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2년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점이다. 2010년 제주도 전역이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

증을 받을 당시, 대표명소는 9곳이었다. 지금에는 대표명소가 13곳으로 확대되면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2020년 GGN 제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주 자연 세계적인 입증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알프스산역의 남쪽 자락이 된다.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스키관광지로 이름난 캄벨리오에서 타전한 승전보는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역사문화·전통적 가치가 이미 세계적인 입증을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 대표

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조금은 없다



부경록

외도동주민센터

지난 주말, 어느 때와 같이 한 행사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행사장을 찾은 분들은 많았고 행사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 다른 주차구역은 가득 차서 주차할 곳이 없었다.

주차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해마다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과 가을 낚시를 만끽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조금 전에 비어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비상등 켜둔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있었고, 아이들과 주차된 차

량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차주가 달려 나와 차를 타고 갔다.

그 모습을 본 8살 아들이 “아빠~! 저기 파란 곳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 모습이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이 되는데 법 이름에 ‘임산부’라는 문구 때문에 몇몇 분들은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지를 발급을 받고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은 ‘조금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접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조금 침범 하는 사례가 있는데 보행상 장애인들은 그 조금의 틈이 없어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이동을 할 수 없어 주차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해야 된다.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활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이들과 조금 걷긴 했지만 대화도 나누고 주변풍경을 감상하며 우리 아이들과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필자는 오늘도 스스로 반성하며 조심히 행동을 한다.

칼럼

모범답안이 없는 사회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된 표어가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불조심’. 절묘한 발상이다.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계도성을 지녔으니 만점짜리 표어다. 가히 독보적이다.

귀에 익은 게 또 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반공을 강조하던 시대에 대남간첩의 자수를 유도하기로 이 이상이 있었을까. 촌철살인으로 의표를 질렀다.

시대가 바뀌면서 표어도 평화롭게 흐른다. 어느 날 거리에서 눈길을 붙든 문구, ‘운전자의 정지선이 내 자녀의 안전선’. 눈 번쩍 띄었다. 표어를 생각해 내는 사람은 눈매가 형형할 것이다. 그런 머리아말로 ‘창의적·확산적 사고’의 공간이 아닌가.

사이트의 ‘말[馬]시리즈’에서 꺼낸 것들이다. 리더십이 있는 말? ‘카리스마, 버락 오바마’. 일본에서 인기 있는 말? ‘욘사마’. 고민이 쌓인 말? ‘딜레마’. 폭탄 맞은 말? ‘히로시마’. 여름이면 오는 말은? ‘장마’ ….

신세대의 진화… 눈높이 높여야

또 하나. 초등생의 모범답안이란. 보다 기절초풍할 뻔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이 물음의 답은 당연히 ‘설상가상’이다. 한데 한 초등생의 답은 그게 아니었다. 네모 빗에다 처음에 ‘설’ 셋째 칸에 ‘가’라 했더니, 주어진 빈 칸에 ‘차’와 ‘또’를 써넣은 것이다. 완성한 게 ‘설사가또’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답은 ‘죽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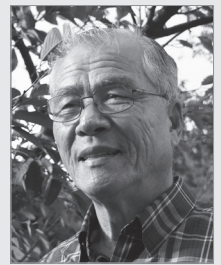
기상천외의 상상력들이다. 아이들을 어리다 만만하게 봐선 안된다. 신세대의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글 몇 줄 쓴다고 하다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개최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똑 같다」라는 고교생이 쓴 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눈으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들으려 했던 적이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 그들의 귀로(중략)//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그들도 싫어한다(서귀포고 1, 석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메시지다. 쉬운 우리말로 주제를 깔끔히 함축했다. 꼬집고 어르고, 참 신선하다.

사회가 어수선하다. 모범답안이 없다. 티격태격하면서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어 보이니 답답하다.

아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정치란 사람 잘 살게, 세상 잘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닌가. 눈이 한 단계 높은 곳에 닿아야 비로소 어른 구실을 한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무지개 연가 시화전 전시작품

무지개 마을(원장 박정해)은 처음으로 지난 10월부터 정신장애인 문예작품을 모아 시화전을 개최했다. 시화전에는 25명의 시화 32점이 전시됐다. 특히 지난달 9일에는 작품들을 모아 만든 책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작품들은 문제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로 자유롭고 순수하게 표현해 냈다. 이에 무지개 마을에서 선정한 5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감자를 먹으면 맛있다

강 병 탁

감자를 먹으면 마음이 따듯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고구마처럼 달지도 않고
호박처럼 무르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담담하고
치분한 맛

화가 날 때는 감자를 먹으면서
모난 마음을 다려야겠다

행복을 꾸는 사람

김 용 진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집에 가서 밥도 맛있고 국도 반찬도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보러 두 번째 갈 때도
어머니께서 좋아하니까
행복합니다

누님께

김 충 주

늘 같이 있어서 나를 가르쳐주고
좋은 예의범절을 지어주는 누님이 그립습니다.
오늘날 누님이 고맙한 마음 지워주시던
고향에 있던 누님을 지극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으로 힘든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누님이 그립습니다.
늘 건강하고 웃음을 갖고 현실을 그려주던
어린 시절의 누님
마음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커피를 음미하면서 사색을
즐기는 10분 동안

조 명 옥

그윽한 향기가 내 혀를 자극하면서
내 마음은 어느덧 천국에 가 있고
어느새 인생의 고뇌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음도 어느덧 망각해버린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은데
나의 존재는 미약하여 허무한데
커피의 향기를 음미하면서
나도 어느새 해방된 미소를 그려본다

30여년의 인생이 넘는 동안 나의 친구가 되어준 커피
커피 없이 인생을 논하며
커피를 한 잔 한 잔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던 내
인생도
한 해 한 해 채워져 세월을 계산한다

나의 인생에 없어서 안 될 커피
나의 삶을 채워주는 커피
하루하루 시간을 토크처럼 이어주는 커피
커피는 내 인생을 만드는 설립자이더
내 삶은 커피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간다

진실한 사랑

이 경 탁

대대로 즐기 만이 자라고
꽃이 피지 않는 때가 있다

또 꽃만 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

진실이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서 좋다

그러나 진실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함으로써 진실을 행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설탐방

(101)굿네이버스 제주지부

10개 학교 방문 다양한 심리 상담

아동·부모 위한 좋은 마음 센터 운영도

굶주림 없는, 나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이웃'이 있다.

도민들과 지역 단체들의 나눔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제주지부(지부장 윤 민)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제주를 위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1991년 한 국민에 의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는 2014년 1월에 문을 열고 5년째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는 지부장 1명과, 팀장 2명, 상담실장 1명, 일반 직원 4명 등 8명이 운영하고 있다. 또 치료사 선생님 8명이 심리상담센터인 '좋은마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의 주요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이다.

현재 110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좋은마음센터에서 다양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거리가 멀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연간 도내 10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NGO 활동가 진로교육, 원하트 나눔인성교육 등이다.

좋은마음센터는 유료로 운영된다. 사실 치료기관의 대부분의 수익을 운영비나 임대료 등의 비용 처리에 사용하지만, 굿네이버스 제주지부는 수익금 전액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치료사 선생님들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굿네이버스 제주지부는 도내 및 해외 아동들을 지원하

기 위한 모금캠페인과 희망 장학금 조성, 위기가정 사례 지원, 희망견 기대회, 좋은이웃 플리마켓 등 다양한 교육·복지·캠페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강성완 팀장은 "국제구호개발 NG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도내 아동 및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의 노력은 도내 학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사업은 물론 방학 중에 진행되는 희망 나눔 학교 및 굿유스(중등) 등의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부모들 역시 희망견기대회 등 자녀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나눔 연계 행사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굿네이버스 제주지부의 목표는

제주를 위한 좋은 변화다.

강 팀장은 "굿네이버스 제주지부는 제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NGO가 아니다. 해외 사업은 우리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제주지역의 아동과 가정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며 "굿네이버스의 캐치프레이즈인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처럼 제주지부는 '제주를 위한 좋은 변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김승지 기자>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57

사실혼이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우리 헌법은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한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법률혼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관계와는 구별된다. 혼인의 의사나 혼인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만 사실혼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 이웃들이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 정도가 되어야 사실혼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쉽게 말해 법률혼에서 혼인신고만 없는 것이 사실혼이다.

◆ 사실혼 관계의 효과

만약 어떤 남성이 A라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을 살다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A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B라는 여성을 만나 부부로 30년을 살았다고 하면 A는 법률상 배우자가 되고 B는 사실혼 배우자로 보이는데, 이 경우의 B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남성의 유일한 배우자는 A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B와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남성과 A가 이혼한 이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야 B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된다.

위의 예에서 남성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혼인신고가 유효한 A에게만 인정된다. B가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B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동거, 부양, 협조 등 부부로서의 법적 의무는 서로에 대해 인정된다.

◆ 사실혼의 해소

부부이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던 남녀가

헤어지기로 한다면 이혼을 할 필요가 없다. 이혼의 대상인 혼인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부부로 살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법적 문제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부부로 살면서 함께 이룬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